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4년 11월 보도자료(<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G20,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건 분야 국제 공조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 채택

- 조규홍 장관, 주요 20개국(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보건장관회의 등 참석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31일(목)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2024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및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대표와 함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료 접근의 형평성 증진 및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의 주최로 대면으로 개최되었으며, G20 회원국 및 초청국과 보건·의료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조 장관은 팬데믹 예방·대응·대비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며, 다양한 보건 위기 대응 자금조달 방안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한 균형 잡힌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 보건장관회의에서 조 장관은 글로벌 건강 불평등 심화 현상에 주목하며, 한국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운영 중인 바이오의약품 생산 교육을 중·저소득 국가의 생산역량 확충과 글로벌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표 사례로 소개하였다. 또한,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불평등한 영향에 주목하며,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 이날 두 회의를 통해 3년 만에 마련된 보건장관회의 선언문은 내달 G20 정상회의의 결과물로 활용되며, 향후 개최될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회의 및 협상에서 주요 이정표로서 작용할 수 있다.
- 한편 조 장관은 G20 의장국 브라질 니시아 트린다지(Nisia Trindade) 보건부 장관을 만나 G20 등을 통한 다자 협력 강화방안과 바이오헬스, 인력양성 등 양국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수석대표 파드 아잘라젤(Fahad Al-Jalajel) 보건부 장관을 만나 의료인 연수, 환자 유치 등 양국의 보건의료 협력 관심 분야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16년 체결 이후 현재 추진 중인 MOU 개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영국의 수석대표 앤드류 그웬(Andrew Gwynne) 보건사회복지부 차관과 만나, 작년 체결한 보건의료 분야 MOU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R&D 및 항생제 내성 등 양국 관심 분야를 구체화하고 연내 보건 대화 개최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였다.
- 조 장관은 “이번 G20 보건장관회의 참석을 통해, 글로벌 건강 불평등 해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는 글로벌 보건 체계의 일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2524. 국제협력담당관. 2024. 11. 1.

II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백신생산 실습교육 최초 실시

- '24년도 세 번째 교육으로 WHO 협력 실습교육은 첫 실시 -
- 중저소득 27개국 59명, 4주간 mRNA 백신 등 생산공정 실습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1일(월)부터 4주간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중·저소득국 백신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실습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한국 지정(22.2)

■ 그동안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과 협업을 통해 지역에 한정된 대륙별 실습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인력양성허브 최초로 WHO와 협력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백신생산 실습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이번 교육에는 보건복지부와 WHO가 교육생 선발위원회를 통해 선발한 전 세계 중·저소득 27개국 59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교육생들은 대부분 백신·바이오의약품 공·사기업체, 관련 연구소 등 재직자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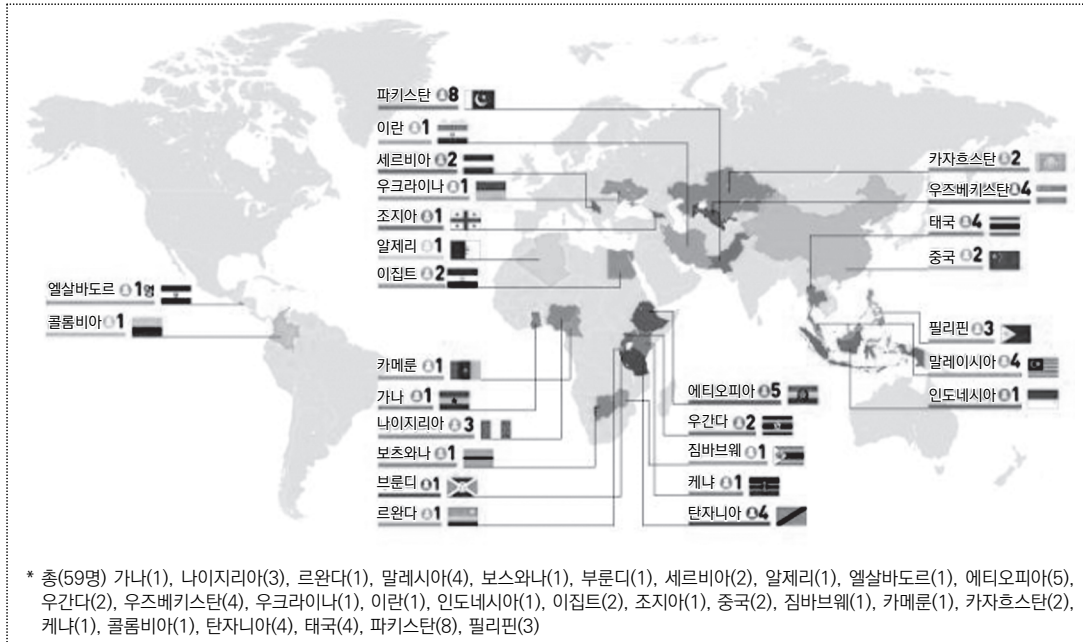
■ 교육생들은 앞으로 4주간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등 세계적 수요가 높은 백신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준수하면서 제조하는 공정을 배울 예정이다. 교육은 (재)글로벌바이오 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이 총괄 주관하고 국제백신연구소(IVI)와 연세대학교 K-NIBRT 사업단*이 운영하며, 총 4주 중에서 2주간은 실제 국내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인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와 화순 생물 의약연구센터*** 등을 활용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 연세대학교 K-NIBRT 사업단: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위치한 바이오의약품 분야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복지부 및 산업부 지원을 받아 연세대, 인천시, 인천테크노파크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 중

**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GMP 시설을 활용한 동물세포 배양 기반의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위탁개발생산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비임상/임상용 시료 및 상용화 제품에 대한 CDMO 사업 및 전문인력양성 사업 수행 중

*** 화순 생물 의약연구센터: 화순 생물 의약연구센터는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약품 원액생산 및 비임상, 임상시료생산 완 제라인을 구축하고 생물의약품 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실습교육(11.11~12.6) 교육생 선발현황】



- 이번 교육은 mRNA 실습과정과 바이러스 벡터 실습과정으로 구분하고 교육생들도 2개 배치로 나눠 mRNA 실습과정은 K-NIBRT와 화순 생물약학연구센터 등에서 각 2주간 실시하며, 바이러스 벡터 실습과정은 국제 백신연구소와 안동 동물실증지원센터에서 4주간 실시한다.
- 그동안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교육이 이론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론교육을 통해 쌓은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제 제조환경에서 첨단 설비를 활용한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표준운영절차(SOP) 작성, 품질관리, 생물안전(Bio-safety) 준수 등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교육생들의 실질적인 백신생산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실습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은 자국에 복귀하여 실제 백신·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직접 투입돼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적용하거나 전파하여 중·저소득국의 백신자급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자국의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은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가 WHO와 협력을 통해 최초로 실시하는 실습 교육으로 우리나라가 지닌 GMP 산업환경을 활용하여 전 세계 백신생산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바이오헬스 중심국가로서 글로벌 인력양성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2546. WHO인력양성허브지원팀. 2024. 11. 10.

Ⅲ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망 강화

- 11월 22일부터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운영 시작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와 협력하여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이하 종합공제)를 개발하였고,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11월 22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상해사고나 배상책임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 현재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나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현장에서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마련하게 되었다.

- ‘종합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도전행동(자·타해)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이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행기관의 배상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사고당 최대 5억 원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이 많은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내부가 아닌 외부의 활동인 경우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 ‘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서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종합공제’의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 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11월 22일부터 연중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에서 종합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 상담센터(02-3775-8838)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신설하여 이용자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제공기관과 종사자의 부담도 완화되어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개요

■ 가입 대상

-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활동,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관 단위 신청)

■ 보장 범위

| 구 분 | 보장담보 | 보장금액 (최대) | 자기부담금 |
|--------------|----------|----------------------|----------|
| 배상책임 | 대인 배상 | 인당 1.5억 원 (사고당 5억 원) | 사고당 10만원 |
| | 대물 배상 | 사고당 5천만 원 | 사고당 10만원 |
| ①종사자 →이용자 | 음식물 특별약관 | 인당 3천만 원 (사고당 1억 원) | 사고당 30만원 |
| | 형사 방어비용 | 5백만 원 | - |
| ②이용자 →제3자 | 형사 벌금 | 2천만 원 | - |

| 구 분 | 보장담보 | 보장금액 (최대) | 자기부담금 |
|--------|------------|-------------------|-------------------|
| 종사자 상해 | 상해 사망 | 3천만 원 | |
| | 상해 후유장애 | 3천만 원*장해율 | |
| | 상해 입원일당비 | 일당 2만 원 (180일 한도) | |
| | 상해 골절진단비 | 사고당 25만 원 | |
| | 상해 화상진단비 | 사고당 20만 원 | |
| | 상해 의료지원비 | 사고당 10만 원~500만 원 | 본인부담병원비 급수에 따라 지급 |
| | 정신적피해의료지원비 | 사고당 30만 원 | |
| 이용자 상해 | 상해 치료비 | 사고당 1천만 원 | 사고당 10만원 |

※ 세부내용은 약관 참고

■ 보험료 및 보장기간

○ 연간 종사자 1명당 15만원으로, 1년 단위 가입

ex) 종사자 5명, 이용자 4명인 기관이 가입하는 경우: 5(종사자수)×15만원=75만원 보험료로 기관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보험 보장 가능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2580. 장애인서비스과. 2024. 11. 21.

IV

어려움 겪는 위기가구 찾기 위해 인공지능(AI) 전화 초기상담 전국 시행

- 11월 25일부터 인공지능(AI)이 위기가구에 “똑똑” -

〈 AI활용 초기상담 지원 및 활용 사례 〉

- ❶ 사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등 체납, 금융연체가 있는 대구 거주 A씨를 위기가구 발굴 대상으로 통보, 명단을 받은 대구시 OO동 행정복지센터는 당일 오후, AI 초기상담으로 경제·고용위기, 관계 단절로 인한 도움 필요 상황을 신속히 확인, 이후 공무원 집중 상담
 - ⇒ 복지욕구 신속 확인하여, 긴급 생계지원과 후원물품 연계, 주기적 안부확인, 고용복지센터 연계를 통한 취업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서비스 의뢰
- ❷ 사례: 서울 소재 OO동 행정복지센터는 2개월마다 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평균 100여명 조사, 전에는 연락처를 일일이 확인하고 연락처마다 전부 전화하여 초기상담을 진행하여 복지지원까지 시간 소요
 - ⇒ 앞으로 AI활용 초기상담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연락처로 순차적으로 자동 연락,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연락가능 번호를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히 복지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5일(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찾기 위해 인공지능(AI) 전화로 초기상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단전, 단수 등 47종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복지위기가구 조사(격월 연 6회, 약 120만 명)

- 보건복지부는 앞서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올해 5월 구축하고, 7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하였다. 시범운영 기간(7~11월)에 위기가구 중앙 발굴 대상 201,323명 중 51%인 102,374명에 AI 초기상담을 적용하여 위기가구 발굴·지원 현장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2024.7.22.~9.13. 101개 시군구 → 2024.9.23.~11.15. 158개 시군구로 시범지역 확대

- 현재는 위기 의심 가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이 일일이 초기상담 전화로 복지위기와 복지수요를 파악한 후 심층상담과 가구방문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나 민간서비스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앞으로는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연락하여 실시하는 “초기상담” 단계에서 시스템으로 해당 가구에 전화를 하고 시나리오에 기반한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위기가구의 복지욕구를 신속히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건강·경제·고용·돌봄위기 관련 공통 질문 후 위기정보 관련 추가 질문 수행

- AI 초기상담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지자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AI초기상담을 진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시스템으로 발송하여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또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연락처를 남겨둔다.
- 이후 시스템이 사전에 파악된 위기가구에 전화(1600-2129, 발신전용)하며 발신자명은 내번호알리미 기능을 이용하여 “읍면동AI복지상담”으로 표기한다. 대상자가 전화를 받게 되면 복지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파악하는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지자체 담당자는 시스템에서 상담내용을 확인하여 심층상담, 가구방문 등을 통해 복지지원 여부를 검토한다.

| | |
|---|--|
| <p>1 대상자 상담요청-발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가 대상자 선택, AI 상담요청 · 발신 전 사전문자 (대상자 성명,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기재) · 대표번호(1600-2129)로 전화 | <p>2 인사 및 본인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지자체) 및 통화목적 안내 · 본인 확인 및 초기상담 희망 여부 문의 |
| <p>3 복지욕구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건강, 경제, 고용, 돌봄 · 추가: 관계, 주거, 안전 등 · 개방형 질문(상담 참고사항) | <p>4 상담결과 제공안내 및 종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결과 지자체 담당자 제공 안내 및 종료 · AI 초기 상담 결과 지자체 공무원 확인 |

-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의 복지욕구를 빠르게 파악하는 등 일선 복지업무 효율성을 높여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2589. 복지정보기획과. 2024. 11. 24.